

# 총장 직선제 문제를 지상토론에 부치며

◇…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등장했던 대학 총장 직선제가 시행 9년 만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사립대 재단을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재단과 교수협의회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96년 6월 현재 전국 26개 국·공립대학(교육·개방대 제외) 중 25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고, 117개 사립대학 중 교수 직선 대학은 36개대(30.8%), 재단 선임 대학이 74개대(63.2%), 기타 대학이 7개대(6%)이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 36개교 중에서도 총장 직선제 폐지를 확정한 대학은 9개교, 폐지 검토중인 대학은 8개교, 폐지 여부를 재단에 일임한 대학은 1개 대학이고 나머지 18개 대학만이 폐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약 60개의 사립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였으나, 1995년부터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재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대학의 자치권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총장 직선제가 대학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공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직도 불건전한 사학 재단이 존재하는 한, 총장 직선제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 호 지상토론에서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며, 아래에 1987년부터 최근까지의 총장 직선제 관련 사건의 일지를 국내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실는다. 편집자 …◇

## 총장 직선제 관련 일지(1987~1996)

- 1987. 12. 목포대, 국립대 최초로 교수 직선으로 학장 선출. 7개월 후 교육부의 학장 승인 얻음.
- 1987. 12. 세종대, 교수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총장선출 여론수렴위원회'(학생과 직원 노조의 대표로 구성)의 동의를 얻어 전체 교수회에서 총장 선출함. 그러나 재단에서 이의 불법성을 제기하여 선출된 총장이 학교를 떠나고, 1년 10개월 동안의 학내 분규 끝에 재단의 조치가 부당함을 주장한 많은 교수가 불이익을 당하고 재적학생의 63%인 2천 9백여 명이 유급 당함.
- 1987. 조선대, 총장추천위원회(교수·학생·직원·학부모·동창회 대표 등으로 구성) 동의를 거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선출함.
- 1988. 5. 계명대, 사립대학 최초로 직선 총장 선출.
- 1989. 4.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학의 총장임명권 재단에 귀속.
- 1989. 7. 교육부, 직선총장이 취임한 조선대와 영남대에 장기감사 벌이면서 검·경찰 간부, 안기부, 보안사 책임자들 수시 접촉하여 두 총장의 동향에 대한 정보란 제공받음. 교수·학생은 이 감사가 보복성 감사라고 비난함.
- 1989. 10. 세종대, 전체 교수회의에서 총장선출시 학생이 선거 관여함.
- 1989. 12. 8. 경남대, 교수회에서 총장 선출함. 총장 선출 규정을 만들 당시 직원협의회에서 선거권을 요청하고, 총학생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요청하였으나, '총장 선거과정에 학생·직원·기타 대학 구성원 대표가 참관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합의함.
- 1989. 12. 12. 충북대,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총장 선출. 학생과 행정직원이 총장 직선제의 참여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였으나, 자체의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양보함.
- 1989. 12. 13. 목포대,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선출후, 교육부에 총장 임명 예정자를 단수 추천하였으나, 세 차례의 추천과 반례 끝에 차점자와 함께 복수 추천(1990. 2. 14)하여 총장이 임용됨.
- 1990. 1. 우석대, 평교수회 총회에서 학장을 선출하여 재단이 임명함. 총학생회에서 교수·학생·직원이 총장 후보를 동시에 추천하여 이 중 중보된 자를 대상으로 평교수회에서 학장 선출을 요구하고, 평교수회는 이를 다음 기회부터 실시하기로 의결함.
- 1990. 2. 금오공대, 학장추천위원회가 학장 후보 추천.
- 1990. 4. 숙명여대 총장 취임. 학생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지 않은 데 대해 학생 항의.
- 1990. 5. 전북대, 1989년과 1990년 초까지 교수와 학생이 직선총장을 선출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많은 장애를 겪음. 1990년 5월 교수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였고, 학생대표 2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함.
- 1990. 5. 경북대, 교수회 교향선출방식으로 투표 실시, 학생은 선거 참여 요구.
- 1990. 6. 경기도, 총장서리 임기 만료로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직선을 위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교수·학생·직원·동문·재단 관

- 제자로 구성) 결성하여 총장 선출. 경기대 재단은 직선총장 강제 해임.
1990. 6. 13. 단국대,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선출후, 이광 교수·학교측 대표 3인과 학생 대표 2인이 합의함. 이는 실질적으로 대학 총장 선거 사상 최초로 교수협의회에서 선출된 총장을 학생들이 동의한 것임.
1990. 6. 11. 고려대, 총장 임후보자들에게 대하여 총장추천위원회(교수·학생·직원으로 구성)의 추천 동의를 얻은 후, 교수협의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과반수를 얻은 2인의 총장 후보를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이 이 중 1인을 총장으로 임명함. 그러나 학생들은 이 제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총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함.
1991. 5.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발표: 국·공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은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부교수 이상·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 대표로 자율적으로 위촉)에서 2인 이상의 총·학장 후보를 선정하여 정부에 추천하도록 함. 이는 위원회가 총장 선출의 실질적 최종 기능을 담당하거나 또는 교수 직접투표에 시행하는 후보 선정의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임.
1991. 6. 민교협, 국교협 등 위 안에 대해 반발 - 총·학장후보추천위원회에 행정직원·학생·조교수·전임강사 등을 배제한 것은 간선제 의도라고 주장.
1991. 8. 서울대, 교수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 후보 두 명 중 교육부가 김종은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
1991. 11. 한국교원대, 전제교수협의회에서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 총장선임추천위원회 구성 준비.
1992. 2. 한남대, 교직원 및 학생이 포함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3인의 총장 후보 중 교수총회에서 2인의 후보를 선출하여 재단 이사회에 선임을 요청함.
1992. 4. 강원대, 교수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하여 교수 직선으로 2인 선출, 교육부에 추천.
1992. 5. 서울대, 부설 '인구 및 발전 연구소'에 '서울대 운영 전반에 관한 교수의견 조사연구'를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총장선출 관련 규정 등을 고치기로 함. 이는 1991년 7월 서울대 첫 직선총장 선거 관리를 맡은 '서울대 총장 후보 선정위원회'의 총장선출 방식 검토 건의와 교수 여론에 따른 것으로, 단과대 중심의 집단이기주의와 학연주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임.
1992. 9. 목원대, 인사위원회에서 총장 후보 선출하여 이사회에 복수 추천후 이사회가 임명.
1992.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현행 대학총장 선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간함. 이에 따르면 대학총장 중 총장 직선제 반대 66.7%, 찬성 33.3%로 나타남. 현 총장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총장선출 방식으로는 '후보추천위 선출후 재단 임명'이 30.6%. '교수 직선후 재단 임명'과 '재단 임명후 교수회의 승인'이 각각 22.6%, '재단 임명'이 24.2%로서 간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1993. 3. 충남대, 직선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2인 이상이 아닌 단독 후보라고 추천서 반려하였으나, '94년 4월 총장으로 임명.
1993. 4. 대구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학생은 직선제 실시 주장, 학생들 분과 점거 농성하며 수업·중간고사 거부, 교수협의회는 총장 직선 촉구 농성, 1994년 2월 임시관선이사 과결됨.
1993. 6. 인천대 교수협의회, 직선총장 선출.
1993. 7. 대교협 주최 1993년도 하계 대학 총·학장 세미나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은 학교법인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총장 임명으로 제한하고 교수·교직원 임명권한은 총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국회·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또한 교수협의회와 평교수협의회는 공식기구화를 요청하는 교수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함.
1993. 10. 광운대, 교수 투표로 2인 후보 선출 - 직원 및 학생 대표 참관인, 총장 후보 자적기준위원회.
1993. 11. 목원대 이사회는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고쳐, 1994년의 차기 총장 선거에 최초로 직원·노조 대표가 교수와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모두 19명의 교직원 및 노조 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하였으나, 일부 교수들의 반대와 더 많은 인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노조측의 의견이 맞섬.
1994. 3. 청주대, 재단의 총장 지명으로 교수협의회 등 반발. 목원대 교수협의회, 총장 광신임 결의문 발표.
1994. 7. 8. 대교협 대학 총·학장 하계세미나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총장들은 총장 직선제 부작용 해소 위해 각 대학 자체 실정에 맞는 개선책 강구하기로 결의함 - 교수협의회 등 반발 됨.
1994. 7. 20. 건국대, 이사회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한다고 발표. 이에 교수협의회·교직원 노조도 찬성 입장을 밝힘.
1994. 7. 30.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대학 총·학장 세미나에서 결의된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성명 발표 - 총장 직선제가 정착되기 전에 이의 폐지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학 개혁과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주장.
1994. 8. 3. 강릉대 교수회는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의 문제 사제로 강릉대를 예시한 것과 관련하여, 강릉대 사태는 '직선제의 후유증이 아닌 대학사의 불법적 로비 자금 사용과 공금 유용 등이 원인'이라고 성명 발표. 교수회는 견적 처분된 교수 12명 중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총장 퇴진 요구로 벗어난 강릉대 사태가 교육관료제의 실체 사태가 아닌 총장 직선제의 실체 사태로 비쳐지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함.
1994. 8. 포항공대, 최초로 대학총장 공개 모집 공고함.
1994. 8. 광운대, 총장 직선제 시행 대학 중 처음으로 직선제 포기하고 보직교수 9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7명의 총장 후보(교내 교수 5명과 외부인사 2명)를 정하여 재단에 제출함.
1994. 8. 27. 건국대, 1988년 8월 채택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재단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1994. 9. 한국방송대, 총장후보선정위원회의 세 후보 중 교수 전체 투표로 총장 선출 - 외부 임명 인사.
1994. 11. 18. 교육개혁위원회는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공청회에서 재단 이사회 구성시 설립자의 친족 이사 수를 총 이사정원의 5분의 2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함. 또한 평교수들의 협의체인 교수평의회나 교수협의회를 없애자고 주장함.
1994. 12. 성공관대, 학생들 총장실 점거, 총학생회·노동조합·강사노조·대학원학생회 등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총장 선출시 참정권 요구. 이에 교수들은 총장선출은 자신들의 권한이라며 맞섬. 동국대, 1995년 1월의 총장 선거를 앞두고 직원노조가 참정권 요구함.
1995. 5. 20. 대교협과 한국고등교육연구회, 현행 총장 직선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간선제의제, 하향식 또는

상향식 절충제, 다인적 혼합제 등의 선출방식이 제시됨.

1995. 12. 목원대 총학생회, 총장 직선제 요구하며 45일째 농성하던 중 장기간 수업 결손에 따른 대량 유급사태를 막기 위해 교수협의회가 정상수업 실시를 결정하자 4개 강의동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개워 학생들의 출입을 막음.
1996. 2. 울산대, 총장 직선제 대신 재단 임명으로 총장 선임함. 울산대 교수협의회는 추천위원회를 통한 총장 선출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단측과 협의를 진행중임.
1996. 3. 30. 한국지역대학연합 소속 대학 총장들(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한남대, 호남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의함.
1996. 4. 3.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한국지역대학연합 소속 대학 총장들의 직선제 폐지 결의에 대한 항의성명을 내고 총장 직선제와 교수협의회 구성의 법제화를 촉구함.
1996. 4. 8. 계명대 법인 이사회, 현행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법인이 총장을 선임하겠다는 입장 공식 발표.
1996. 4. 14. 계명대 민주동맹회, 재단에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 철회 촉구.
1996. 4. 22.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대구·경북 민교협 등 교수단체, '민주적 총장 선출과 교권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계명대 등 7개 대학의 총장 직선제 폐지만 철회를 촉구.
1996. 4. 30. 연세대 이사회, 현행 총장 직선제 대신 '총장후보추천위원회'(교수·학생·직원·사회유지·동맹회·기성회 대표 등으로 구성)를 통해 총장을 선임하기로 의결함.
1996. 5. 3. 연세대 교수평의회, 이미 차기 총장선출 선관위원까지 선임되었고, 후보 등록일까지 지정된 시점에서 재단 이사회가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데 항의하기로 의견을 모음.
1996. 5. 7. 국민대 이사회,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본교 전임강사 이상 교원 30~40명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결의함.
1996. 5. 9. 계명대 이사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총장으로 선임. 계명대 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해 총장 퇴진 촉구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기로 함. 인문대학장과 자연대학장은 이사회의 총장 선임에 항의해 보직을 사퇴함.
1996. 5. 11.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회담단, 일부 사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반대성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함.
1996. 5. 21. 민교협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재단 이사회의 독립적 학교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1996. 5. 28. 계명대 이사회의 교수협의회 해체 결정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시한부 농성 돌입.
1996. 5. 31. 대법원은 연세대 승자 총장의 총장선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 선임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함.
1996. 6. 2. 경기대 평교수협의회, 재단에 총장 직선제 시행 요구. 총장추대위원회를 구성해 교수들이 직접 선출한 총장 후보를 재단 이사회가 임명할 것을 요구함.
1996. 6. 3. 연세대 이사회, 교수평의회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수·교직원·기성회 몫의 추천위원 18명을 선정 발표함.
1996. 6. 4. 전남대, 교수 직선으로 새 총장 선출.
1996. 6. 12. 계명대 학생 1,000여 명, 총장 직선제 요구하며 대학 본관 잠거·농성.
1996. 6. 13. 계명대 교수협의회, 자체 총장선거 실시하여 새로운 총장 선출, 이에 대해 대학측은 실질적으로 투표 참가 교수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번 선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
1996. 6. 14. 연세대 교수평의회, 교수 직선으로 총장 후보 2명 선출하여 재단 이사회에 이들을 총장 후보로 추천, 연세대 교직원 노조도 자체적으로 총장 후보 신청을 받아 교수평의회에서 총장 후보로 뽑힌 2명을 재단측에 총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함.
1996. 6. 15.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하여 총장 직선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전국 사립대 교수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함.
1996. 6. 17. 계명대, 학생들 기말고사 거부. 교수협의회는 재단이 일방적으로 연임시킨 현 계명대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한 전국 61개 대학의 교수 3,746명의 명단을 공개.
1996. 6. 20. 이화여대, 교수 29명으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를 열고 3명을 총장 후보로 선정하여 재단에 추천.
1996. 6. 27. 계명대 교수협의회, 재단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뒤 유일시킨 현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 지방법원에 내고, 교수 직선으로 뽑은 이형득 교수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냄.
1996. 7. 5. 대교협 주최 전국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립대학 총장선출 방식의 현황과 추이' 보고서에서 전국 36개 사립대학 가운데 17개 대학이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집계됨. 교육부 장관은 총장 선출 방식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대학에는 행정·재정적인 분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힘.
1996. 7. 23. 국민대 이사회, 교수협의회가 선출한 총장 후보를 배제한 채 총장 선임하여 교수협의회와 갈등.
1996. 7. 23. 연세대 이사회는 4명의 최후후보(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 중에서 1명을 새 총장으로 선임함. 교수평의회 및 학생은 이에 반발함.
1996. 7. 24. 전국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연세대·국민대 총장 선출 문제와 관련, 성명 발표.

\* 출처: 한국언론연구원 신문기사 정보서비스(카인즈)(1992.5~1996.7), 『한국대학신문』(1988~1994).

강승규, 『한국 대학 총·학장 선출 현황과 전망』, 『대학교육』, 통권 52호(1991. 7월호).

\* 정리: 본지 편집실 이은영 연구원.